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최근 한 야당 국회의원이 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당직자의 목살을 잡고 회항을 지시하고 이복을 논란에 휘말렸다. 갑질은 한국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 중 하나다.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른바 대한항공 086편 회항 사건을 많은 이들이 기억할 것이다. 2014년 12월 5일, 미국의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떠나는 여객기에서 대한항공 총수 가족이자 부사장인 조현아 씨가 객실 승무원의 서비스를 트집 잡아 항공기 회항을 지시하고 이복을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갑질 사태로 기업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기업의 인사 구조 변화까지 불러오는 파장을 낳았다.

고용주와 피고용주, 직장 상사와 하급 직원, 아파트 입주주민과 경비원, 선배와 후배... 등등. 흔히 부서나 직위 또는 나이의 격차로 인해 갑과 을이라는 비대칭 구도가 생긴다. 범박하게 말하자면, 갑질이란 힘의 관계에서 비대칭 관계인 갑이 을에게 억박지르며 월권적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갑질은 갑의 우둔함과 무신경함에서 비롯된다. 무엇보다도 개별자의 비뚤어진 인성,

갑질에 대처하는 법

인권에 대한 인 지적 감수성의 부재, 즉 인격의 막대한 음이 가장 큰 발생 이유일 것이다.

갑이 을의 인권을 침해하고 이익을 빼앗을 때, 위력을 행사하는 갑질 당사자의 비무함은 그 바다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갑질은 피해자의 내면에 트라우마를 남기며, 삶의 의욕을 고갈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태다. 갑질 피해자의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렇듯 타인의 인격을 짓누르고 파탄을 낸다는 점에서 갑질은 극악한 범죄 행위다.

갑질의 행태는 실로 다양하다. 부당한 강요, 협박, 막말(반말과 욕설), 폭행, 임금 때먹기, 열정페이 따위가 다 갑질이다. 과시적인 소비문화와 함께 갑질이 활개를 치는 천민자본주의 세상은 너저분하고 미친 세상일 것이다.

몇 해 전 어느 방송사 외주 프로그램 제작사의 조연출 일을 하던 한 청년은 모욕과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야근 미친 세상이야"라고 외치고 자살했다. 그런데 갑과 을은 고정불변의 관계가 아니다. 어제의 갑이 오늘은 을이 되고, 어제의 을이 오늘은 갑이 될 수가 있다. 이렇듯 갑과 을의 관계는 유동적이다.

갑질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대중의 분노가 들끓고 별통을 쏘신 듯 소동이 벌어지는데도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없는 것인가? 유교적 가부장제 내에서 작동하는 수직화된 힘의 위계와 질서를 한국 사회가 관습적으로 수용하여 문화정서적 기호로 삼은 것도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또한 깊은 삶의 생태학이 부재하는 사회에서 낮은 단계의 인

권 감수성과 천박한 물질만능주의도 갑질이 장광하는 데 한몫을 했을 테다.

갑질은 구역질 나는 행위다. 어떤 경우에도 갑질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갑질에 대처하는 을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즉각적으로 갑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고 바로잡고자 애써야 한다. 강자들은 내심 약자의 저항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갑질을 당하고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은 철학자 니체가 말 하는 바 우리 안에 잠재된 '노예의 속성' 때문일지도 모른다.

'노예의 속성'은 힘의 위세 앞에서 저자세와 굴종을 낳는다. 이것을 약자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처세술이라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 철학자는 부당함에 저항하지 않는 을을 두고 '재빨리 영합하는 자' '개처럼 특하면 벌벌 드러내는 자' '비굴한 자'라고 꼬집는다. 더 나아가 "결코 자기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는 자, 독성 있는 침이나 사악한 눈길도 받아들이는 자, 지나치게 인내심이 강한 자, 무슨 일이든 만족하는 자를 중요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구역질을 느낀다."("니체, '차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 갑질에 대한 인내심은 우둔함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노예 도덕에 대한 비겁한 굴종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욕과 패배에서 자신을 지키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갑질은 또 다른 갑질을 불러온다. 갑질에 속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참아서는 안 된다. 즉각 분노하고, 항의하라! 그 정당한 분노와 항의가 당신의 자존감과 인격을 지켜줄 것이다.

종교칼럼

'절대 잊지 않을게'



황성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국은 잘 사는 나라 아니야?" "이런 일은 가난한 나라들에서만 일어나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라는 의문이 담긴 말을 건넸다. 왜냐하면 구하지 못해 너무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답할 수가 없었다. 칠레에서 선교했던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괜찮은 나라인지 설명하고 자랑했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놓쳐 버린 우리나라의 모습에 나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무렵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에 들어섰다고 환호했다. 그러나 외적인 성장과 발전에 가려 우리가 진정 가야할 길을 가지 못했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놓쳐 버렸다. 성장에만 목매며 물불 가리지 않았지, 성숙에는 관심조차도 없었다. 몸집을 키우고 물질은 쌓아 올리는데 열을 올렸지, 기본적인 안전과 생명 존중은 돈이 되지 않는다 해서 무관심이었다. 이익이 되는 것에만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지, 서로를 돕고 살리는 것에는 '나만 아니면 돼!'라는 식의 이기심이 앞섰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비롯해 304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1월 19일 세월호 참사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대부분 의혹에 무함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오늘은 끝났지만 세월호 참사 7주기, 아직도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루카 복음서 19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이 떠오른다. 예수는 "평화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지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다. 그리고 예수는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네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평화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성스러운 곳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해 억압과 착취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권력을 지닌 기득권자들이 고단한 삶을 살았던 낮은 곳의 사람들을 더욱 착취했고 금기가 죽음으로써 내몰았던 곳이었다. "평화의 마을"은 불평등의 마을이 되었고, 돈이 이런 안되는 것이 없는 '타락한 마을', 탐욕이라는 '악이 지배하는 마을'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예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눈물은 아직도 마르지 않았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참사의 당사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장이라는 이름 하에, 이익이라는 탐욕에, 돈이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속임수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이 무참히 짓밟힐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미안해! 우리가 절대 잊지 않을게!'

기고

뒤늦게 알아차린 삶의 지혜



이승훈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자신의 숨은 끼를 발휘하듯 공중에서 펼치는 묘기는 진기가 가깝다.

하나로 합쳐지다가도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져 예상치 못한 곳에 낙하하기도 한다. 처마와 마당을 잇는 짧은 공간에서 연속 동작으로 펼치는 공중극에는 아찔한 순간을 맞지만, 지상에 안착하는 순간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다. 땅에서는 서로를 부둥켜안고 하나임을 확인한다.

그리고는 어깨동무를 한 채 낮은 곳을 향해 여유롭게 흘러간다. 끈끈한 우애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모습이 대견하다.

세차게 내리던 소낙비가 가랑비로 바뀌는가 싶더니 이내 말갈계 갠 하늘이 고개를 내민다. 소나기에 목욕한 햇볕이 신선하다.

잔디에 머물던 빗방울이 햇살과 짝을 이뤄 오색영롱한 빛을 발산한다. 맑고 고운 빛깔에 시선을 땔 수 없다. 마당의 잔디를 파듯하게 단장시킨 물방울이 고맙다. 잎마다 뒹굴던 빗방울은 햇살에 하나 둘 종적을 감춘다. 좀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이번에는 촉촉한 습기를 대지에 남겨 두었다. 어디에 머물든 간에 물의 속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때와 장소에 따라 자연스럽고도 대담하게 변신을 꾀하고 있다. 질서에 순응하는 빗방울이다.

고지식하고 미련스럽게 달려온 내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앞다투어 가려고 경적을 울려 대거나 과속하는 법도 없다. 급하고 바쁘다고 해서 앞채 짓도 않는다. 배랑길 같은 위험천만한 곳이 널려 있지만 그 어디에도 준수해야 할 표지판이나 단속 카메라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제어 장치가 있음에도 사고로 목살을 잃는다. 위반의 대가가 목숨을 담보로 할 만큼 위험한데도 말이다.

질서를 허물고 약자를 앞잡거나 짓밟는 일이 일어나는 인간사와는 달리 순리를 거역하는 법이 없다. 막히면 돌아가고 엉덩이를 만나면 가득 채운 다음에야 낮은 곳을 향한다. 순리의 백미가 아닌가?

비 갠 밤하늘을 바라본다. 반짝이는 별들이 쫓아 된다. 꽃길 사이로 걷고 있는 내가 보인다. 길어온 삶의 궤적이 뒤엉켜 곳곳이 찢어지고 굵고 패인 생채기로 얼룩져 있다. 잔디의 우직한 매력이나 오묘한 섭리에 순응하는 빗물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기 보다는 늘 화려한 장미꽃으로 인정받고 싶었나보다. 지천명을 살아가는 동안 너저분하게 남겨진 발자국이 부끄럽다. 순간 삶의 궤적을 깨끗이 뒤고 싶다는 충동이 뇌리를 자극한다. 남은 생은 어떻게 갈무리해야 할지도 명확해진다.

질서와 순리에 순응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社說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에 국회의원도 넣어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논의 끝에 국회의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그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빠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적용 대상은 중앙과 지방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의원까지 모두 190만 명이다. 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비교적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김영란법'과 함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공직자의 직무 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8년간 표류해 왔다. 21대 국회에서도 국민권익위가 법안을 제출했지만 '박덕홍 사태' 때만 반쪽 논의의 후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러다가 최근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법안의 소위 통과는 만시지탄이지만 공직사회의 윤리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에 빠질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가 이해충돌방지법을 모범(母法)으로 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구체적 조항도 마련한다지만, 자신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온 국회의원들의 행태로 볼 때 이 관계가 핑계로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리는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도 적용 대상에 자신들만 속 뺨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기억하고 있다. 다른 공직자들에게 엄격한 감시와 처벌 기준을 적용하면서 국회의원들 스스로 '셀프 감시 및 징계'를 하겠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겠는가. 국회의원들은 지금부터라도 공정한 법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도시 재생' 방식 아파트 위주에서 벗어나야

광주 지역 재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살리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주민들 입에서 나와 주목된다. 옛 주거를 없애고 고층 아파트를 짓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심 주거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광주시 북동 지역민들로 구성된 '북동을 지키는 사람들'과 광주환경연합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어제 북구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초고층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북동 도시 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상업지역 활성화 본연의 취지에 맞는 수북형 재개발 또는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 20~45층 규모의 아파트단지 23개 동을 짓겠다는 북구의 '북동 재개발 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또 금남로5가 일대는 광주의 중

심 상업지역이며 근대 문화유산인 북동성당도 있어 보존 가치가 높고 강조한다. 이곳 금남로 5가역 건널목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정호용이 이끄는 계엄군과 최초로 대치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이들 역사와 삶터 또한 모두 사라지게 된다.

옛 도심 건물도 노후화되고 상권이 침체 일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생사업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옛 삶터를 몽개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현행 재건축방식은 답이 아니다. 북동 주민들이 제시하는 도시재생 방식은 전면 철거가 아닌 현지 개량 방식이어서 도심에 새 숨을 불어넣고 상가나 집주인이 원거주지에서 내몰리는 일도 줄어드는 등 비교적 부작용이 덜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북구청과 광주시 등 행정 당국은 전면 일괄적인 아파트 정책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긴 겨울 끝에 찾아온 파릇파릇한 봄. 아파트 화단에서부터 놓이어나 근린공원에 이르기까지 온통 붉은 철쭉이 피어났다. 온산도 푸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산책하기에 더없이 좋은 녹음의 계절이 오고 있다.

산책을 이야기할 때면 반드시 거론되는 인물이 있으니 칸트다. 칸트는 평생 쾨니히스베르크에서만 살면서 점심 후 오후 3시 30분이 되면 어김없이 산책을 했다. 어쩌나 시간이 정확했던지 마을 사람들은 칸트의 산책 시간에 시계를 맞췄다는 일화마저 있다. 평생 산책을 하

루도 거르지 않았지만 빼먹은 적도 없지는 않았 다. 1762년 그가 평소 존

산책의 계절

경 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경 정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경 체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 문 본 부 220-0642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도 잡스에게 영감을 받은 탓인지 산책을 즐긴다. 직원 채용 시에는 후보자와 숲길을 걸으며 '산책 면접'을 보는 것으로 유명하다. 함께 걸으면서 상대의 인성과 장단점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도 했다.

비야흐로 산책의 계절이다. 산책을 하면 심장과 폐가 튼튼해지고 근력이 강화된다. 더불어 우울감이 해소되고 인지능력이 향상된다. 산책의 가장 좋은 점은 별도의 준비가 필요 없다는 점이다. 일단 운동화를 신고 나서기만 하면 된다. /채희송 사회부장 chae@